

특수학교 중등 발달장애학생의 전환교육 운영 실태 및 운영 방안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황 순 영*

부산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양 혜 림**

부산해성학교 교사

이 후 희***

부산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박사후연구원

《 요 약 》

본 연구는 특수학교 중등 발달장애학생의 전환교육 운영 실태 및 운영 방안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을 조사하여 전환교육의 지원이 확대되는 데 필요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 소재 5개 특수학교의 중등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교사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Version 23)을 활용하여 각 요인 및 변인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와 교차분석을 사용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학교 중등 발달장애학생의 전환교육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실제 특수학교에서 개별화 전환교육계획을 대부분 수립하고 있지 않았다. 전환교육 지도 목표는 자립생활 및 일상생활 기능이 대부분이었다. 전환교육 요소를 포함한 학부모 상담은 많은 교사가 실시하고 있었고, 관련기관과 연계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둘째, 특수학교 중등 발달장애학생의 전환교육 운영 방안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을 살펴보면, 중등 발달장애학생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전환교육 영역으로 자립생활 기능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한편, 학부모 상담 또는 가정과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 교사 또는 학부모의 정보 부족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주제어 : 발달장애학생, 전환교육, 특수교사, 실태, 인식

* 제 1저자

** 공동저자

*** 교신저자 (lhooh@hanmail.net)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사람은 일생에 걸쳐 자신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며 사회생활과 성인으로서의 역할에 적응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발달장애학생들은 성인이 되어 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가거나 성인으로서 필요한 역할 등을 자연스럽게 발달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특수교육에서는 발달장애학생의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진로 및 직업교육을 활성화하였다. 하지만 진로 및 직업교육이 고용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 장애학생들이 성인기 생활로 전환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장애학생들이 효과적으로 학교에서 사회로의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전환교육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김진호(2001)는 전환교육을 장애인들이 직업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과정이라고 정의하는 데에서 모든 성인 생활 영역을 포함하는 “학교에서 성인 생활로 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는 전환교육이 단지 진로교육의 총체적인 서비스로서 고용 측면을 강조했던 예전과 달리 장애학생의 졸업이후 취업·고등교육·지역사회 참여·주거·여가·이동 등 모든 분야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된 것이다. 이처럼 특수학교도 장애학생의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위해 그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정동영, 2000; 조인수, 2005).

우리나라도 장애학생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전환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일환으로 직업교육을 강조하고 있다(교육부, 2017). 하지만 여러 선행연구 및 정책과 달리 학교에서의 전환교육이 졸업 후 독립적인 생활에 연결되지 못하고 학교에서만 전환교육으로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많은 발달장애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한 이후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다시 가정 또는 시설로 돌아가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2017)에 따르면, 특수학교 고등부를 졸업한 2,546명 중 취업은 12.2%(145명)에 그치고 있으며, 비진학·미취업자는 41.2%(1,048명)로 나타나 전환교육이 다시 점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특수학교 고등부에서 전공과로 진학한 후 수료한 1,942명 중 취업은 38.8%(748명)이지만, 비진학·미취업자는 60.9%(1,182명)로 역시 위와 같은 상황이다. 결국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 후 전공과까지 교육을 받았으나, 졸업한 후 어디에도 진학하거나 취업되지 못하여 가정이나 시설로 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는 장애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사회 참여나 성인이 되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수교육에서 발달장애학생들은 지적장애 53.8%, 자폐성장애 12.8%로 대표적

이어서 전체 특수학교 학생의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국립특수교육원, 2017). 또한 특수교육 실태 조사(2014)에 따르면, 자폐성장애 특수학교는 주 장애 유형별 특수학교로 분류되어 있지 않았지만, 지적장애 특수학교가 112개로 전체 166개 특수학교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지적장애 특수학교의 전환교육 운영 과정과 내용이 특수학교의 전환교육 실태와 인식을 대표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처럼 우리나라 특수학교 인원의 대부분인 발달장애학생들은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장애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성인생활을 위해 요구되는 능력을 배우는 1년에서 2년의 단기간 훈련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발달장애학생 전환교육 내용은 무엇보다 학교와 현장을 아우르는 교육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학생의 전환교육에 대한 관련 실태 조사가 최근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는 전환교육이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 지적장애 학생의 전환교육 실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시각·청각과 같은 감각장애나 정서행동장애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숙화, 2011; 이은정, 2011; 이태훈, 2007). 하지만 현재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비율로 보았을 때,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 학생들이 학교에서 받고 있는 전환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의 비율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졸업 후 비진학·미취업자 수가 현저히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달장애학생들의 자립적인 성인생활을 위해 학령기부터 전환교육 실태를 조사하여 현재 운영 상황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전환교육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중등 발달장애학생들의 전환교육 실태와 앞으로의 전환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내용 및 제공되어야 할 정책 등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한편, 전환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교사들이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전환교육의 질이 달라진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발달장애학생들을 직접적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교사이기 때문이다. 교사는 전환교육을 지원하는 주체자가 되므로 교사의 수행능력 또한 전환교육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 이에 권영미(2005), 권용규(2007), 이화영(2008) 등은 전환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연구한 결과로 교사의 인식 및 전문성, 지역 관련 기관의 협조, 시설 및 프로그램,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학부모·가족의 협조 등이 부족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전환교육을 담당하는 전체 특수교사보다 직업교육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왜냐하면, 전환교육이 발달장애학생의 학교 졸업 후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전반적인 교육이라는 점에서 직업교육 교사를 포함한 모든 특수교사들이 발달장애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많은 선행연구들(안지훈, 이승희, 2007; 정운우, 정동영, 2009; 최세민, 2006)에서도 보고하였듯이, 특수학급보다 특수학교의 장애학생에 대한 전환교육 지원이 더 나은 상황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수학교의 중등 발달장애학생들을 직접 현장에서 만나고 있는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전환교육에 관한 운영 실태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중등 발달장애학생들의 전환교육은 개인의 적성과 흥미 및 특수한 요구에 따라야 하며, 학교 졸업 후 성인으로서의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김주영(2006)은 전환교육이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기초적인 직업기능을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사회생활 기능을 익히는데도 중점을 두어 장애 학생 개인을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성인생활을 준비하는 단계인 학교에서부터 바람직한 전환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교사의 전환교육에 대한 이해가 그 바탕이 되어야 하겠다. 그러므로 특수교사들이 전환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을 때 전환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으므로 특수교사들의 전환교육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전환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높이는 데 기초 작업을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환교육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특수학교 중등 발달장애학생들의 전환교육 운영 실태를 탐색하였다. 더불어 성공적인 전환교육을 위해 특수교사의 이해 및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특수교사의 인식을 함께 살펴보았다. 이는 발달장애학생들의 전환교육 실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앞으로 발달장애학생의 전환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발달장애학생이 학교를 졸업한 후 스스로 자립하여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전환교육의 지원이 확대되는 데에 기초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학교 중등 발달장애학생의 전환교육 운영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특수학교 중등 발달장애학생의 전환교육 운영 방안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특수학교 발달장애학생의 전환교육에 대한 운영 실태 및 운영 방안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부산지역 5개 특수학교의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중 중등학교 2, 3학년과 고등학교 1, 2, 3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150명을 우선표집하여 본 연구의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전체 설문지 150부 중 130부가 회수되어 86.7%의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무응답,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120부(92.3%)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대상자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N=120)

| 항목 | N | % | |
|-------|----------|-------|------|
| 성별 | 남 | 35 | 29.2 |
| | 여 | 85 | 70.8 |
| 연령 | 20대 | 24 | 20.0 |
| | 30대 | 57 | 47.5 |
| | 40대 이상 | 39 | 32.5 |
| 담당 학년 | 중학교 2학년 | 12 | 10.0 |
| | 중학교 3학년 | 35 | 29.2 |
| | 고등학교 1학년 | 18 | 15.0 |
| | 고등학교 2학년 | 25 | 20.8 |
| | 고등학교 3학년 | 30 | 25.0 |
| 교육 경력 | 5년 이하 | 23 | 19.2 |
| | 6~10년 | 45 | 37.5 |
| | 11~15년 | 19 | 15.8 |
| | 16년 이상 | 33 | 27.5 |
| 전체 | 120 | 100.0 | |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설문지는 시각장애학교 교사, 학생, 전문가의 전환교육에 대한 인식수준과 촉진방안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이태훈, 2007), 특수학급의 진로 및 직업교육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비교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오은영, 2009), 중등 특수교육기관의 전환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배명자, 2011) 등의 선행연구의 전환교육 실태 및 교사의 인식 연구에 사용된 문항을 참고로 재구성하여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과정의 엄격성을 높이고, 자료 분석 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특수교육전공 교수 1명과 특수교육 직업교사 2명과 함께 설문지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문항의 적절성과 용어의 이해 정도,

설문 시간의 적절성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고, 문항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은 신뢰도 문항이 적어 중요도가 낮아 분석하지 않았으며, 예비조사 후 특수교육전공 교수와 직업교사와 함께 수정·보완 작업을 거치고 선행연구 분석 등을 통해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설문 문항을 분석한 자료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확인 과정을 통해 정보 제공자의 관점에서 연구결과와 타당도를 점검하였다.

설문지는 크게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 전환교육의 운영 실태, 전환교육 운영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을 묻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전환교육 운영 실태는 전환교육의 일반적인 사항과 실시형태, 전환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가정과의 연계 및 주된 내용, 관련 기관과의 연계 등으로 영역을 구분하여 세부 문항들을 구성하였다. 전환교육 운영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을 묻는 영역은 전환교육 실시의 필요성, 전환교육 지도 내용, 전환사정 및 기관 간 전환협력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분하고 세부적으로 하위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에 대한 반응 양식은 진위형과 중다선택형을 사용하였으며,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설문 문항의 구성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설문 문항의 구성내용

| 영역 | 범주 | 문항수 | 반응양식 |
|-------------|--|-----|--------------|
| 일반사항 | 교사의 일반적인 사항 | 4 | 중다선택형 |
| 전환교육 운영실태 | 개별화전환교육계획 수립 | 1 | 진위형 중다선택형 |
| | 전환교육 지도 내용 | 1 | |
| | 전환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 1 | |
| | 전환교육 관련 가정과의 연계 및 주된 내용 | 2 | |
| | 관련 기관과의 연계 | 1 | |
| 전환교육에 대한 인식 | 전환교육 시 필요한 영역 | 1 | 진위형 중다선택형 |
| | 전환교육 지도 내용 | 1 | |
| | 전환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 1 | |
| | 전환교육 관련 가정과의 연계 | 1 | |
| | 전환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또는 가정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 1 | |
| | 전환교육 시 학교와 더불어 관련 기관과의 협력 필요 정도 | 1 | |
| | 전환교육 도입 실정 | 2 | |
| 총 문항 수 | | 18 | |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특수학교의 중등 발달장애학생의 전환교육 운영 실태와 운영 방안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양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전환교육에 대한 실태 및 교사의 인식 문항을 추출 재구성한 설문 문항의 신뢰도를 검토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문항에 대해 수정·보완한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개발은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2017년 9월에서 2018년 1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예비조사는 2018년 2월 약 1개월에 걸쳐 부산지역 특수학교 1개교의 직업교사 10명을 대상으로 본 조사 시행에 앞서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분석 및 자료 수집은 2018년 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예비조사의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연구자 외 특수교육전공 교수 1명과 검토한 후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예비조사 후 설문 문항에 대하여 수정·보완한 후 최종 확정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 배부 및 회수는 2018년 3월에서 2018년 4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부산지역 특수학교 5개교의 중등 교사 150명에게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4. 자료처리

본 연구는 설문지의 각 응답 문항을 점수화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통계처리는 통계프로그램 SPSS Statistics(Version 23)을 사용하였으며,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전환교육 운영 실태, 전환교육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에 대해 빈도, 백분율 등을 알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전환교육 운영 실태, 전환교육 운영 방안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에 대해 문항과 배경변인에 따라 교차분석(Chi-square),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특수학교 중등 발달장애학생 전환교육 운영 실태

1) 전환교육 운영을 위한 개별화전환교육계획 작성 여부

<표 3> 전환교육 운영을 위한 개별화전환교육계획 작성 여부 (N=120)

| 구분 | 영역 | 작성하고 있다 | 작성하지 않는다 | 계 | χ^2 |
|----------------|--------|----------|----------|----|----------|
| | | N(%) | N(%) | | |
| 성별 | 남 | 8(22.9) | 27(77.1) | 35 | .123 |
| | 여 | 17(20.0) | 68(80.0) | 85 | |
| 연령 | 20대 | 3(12.5) | 21(87.5) | 24 | 1.264 |
| | 30대 | 13(22.8) | 44(77.2) | 57 | |
| | 40대 이상 | 9(23.1) | 30(76.9) | 39 | |
| 학년 담당 과정 | 중2 | 4(33.3) | 8(66.7) | 12 | 5.443 |
| | 중3 | 4(11.4) | 31(88.6) | 35 | |
| | 고1 | 2(11.1) | 16(88.9) | 18 | |
| | 고2 | 7(28.0) | 18(72.0) | 25 | |
| | 고3 | 8(26.7) | 22(73.3) | 30 | |
| 교직 경력 | 5년 이하 | 3(13.0) | 20(87.0) | 23 | 2.1958 |
| | 6~10년 | 9(20.0) | 36(80.0) | 45 | |
| | 11~15년 | 6(31.6) | 13(68.4) | 19 | |
| | 16년 이상 | 7(21.2) | 26(78.8) | 33 | |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환교육 운영을 위한 개별화전환교육계획을 작성하는 지에 대한 문항을 살펴보면, 개별화전환교육계획을 작성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남교사 77.1%, 여교사 80.0%로 대부분이었다. 연령을 살펴보면, 20대(87.5%), 30대(77.2%), 40대 이상(76.9%) 모두에서 대부분이 작성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을 보였다. 학년 담당 과정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1학년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88.9%로 대부분이 작성하고 있지 않았으며, 그 뒤로 중학교 3학년 교사들이 88.6%로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교직 경력을 살펴보면, 5년 이하의 교사들이 87.0%가 작성하고 있지 않았다. 전환교육 운영을 위한 개별화전환교육계획을 작성하고 있다는 응답은 현저히 적었으며, 작성하지 않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2) 전환교육 지도 시 교육 내용

<표 4> 전환교육 지도 시 교육 내용(우선순위) (N=120)

| 구분 | 영역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계 | χ^2 |
|----------------|--------|------------|------------|--------------------|--------------------|----------------------|----|----------|
| | | 자립생활 기능 | 일상생활 기능 | 지역사회 참여기능 향상 | 기초직업 기능 및 기술 | 고등교육 기관으로 의 진학 | | |
| | | N(%) | N(%) | N(%) | N(%) | N(%) | | |
| 성별 | 남 | 15(42.9) | 12(34.3) | 5(14.3) | 2(5.7) | 1(2.9) | 35 | 5.058 |
| | 여 | 38(44.7) | 40(47.1) | 2(2.4) | 5(5.9) | 0(0) | 85 | |
| 연령 | 20대 | 7(29.2) | 16(66.7) | 0(0) | 1(4.2) | 0(0) | 24 | 12.707 |
| | 30대 | 26(45.6) | 22(38.6) | 4(7.0) | 4(7.0) | 1(1.8) | 57 | |
| | 40대 이상 | 20(51.3) | 14(35.9) | 3(7.7) | 2(5.1) | 0(0) | 39 | |
| 학년 담당 과정 | 중2 | 7(58.3) | 5(41.7) | 0(0) | 0(0) | 0(0) | 12 | 17.247 |
| | 중3 | 19(54.3) | 11(31.4) | 4(11.4) | 1(2.9) | 0(0) | 35 | |
| | 고1 | 7(38.9) | 9(50.0) | 0(0) | 2(11.1) | 0(0) | 18 | |
| | 고2 | 8(32.0) | 13(52.0) | 0(0) | 3(12.0) | 1(4.0) | 25 | |
| | 고3 | 12(40.0) | 14(46.7) | 3(10.0) | 1(3.3) | 0(0) | 30 | |
| 교직 경력 | 5년 이하 | 7(30.4) | 13(56.5) | 2(8.7) | 1(4.3) | 0(0) | 23 | 21.237 |
| | 6~10년 | 23(51.1) | 18(40.0) | 0(0) | 4(8.9) | 0(0) | 45 | |
| | 11~15년 | 3(15.8) | 10(52.6) | 4(21.1) | 2(10.5) | 0(0) | 19 | |
| | 16년 이상 | 20(60.6) | 11(33.3) | 1(3.0) | 0(0) | 1(3.0) | 33 | |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환교육 지도 시 교육 내용의 우선순위를 살펴본 것이다. 성별을 살펴보면, 남교사의 42.9%, 여교사의 44.7%가 자립생활 기능을 1순위로 답했으며, 일상생활기능은 2순위로 남교사, 여교사가 각 34.3%, 47.1%로 응답하였다. 연령을 살펴보면, 20대 교사는 일상생활기능이 66.7%로 대부분이었고, 30대, 40대 이상의 교사는 자립생활 기능이 45.6%, 51.3%로 대부분이었다. 학년 담당 과정을 살펴보면, 중학교 2, 3학년 교사들의 58.3%, 54.3%가 자립생활 기능이라 응답하였으며, 일상생활기능에서는 41.7%, 31.4%로 그 뒤를 따랐다. 고등학교 1학년 교사들은 50.0%가 일상생활 기능이라 응답하였으며, 고등학교 2학년 교사들도 52.0%로 과반수이상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3학년 교사들은 40.0%가 자립생활 기능으로 응답하였으며, 일상생활기능은 46.7%로 더 높은 응답률이 나타났다. 교직

경력을 살펴보면, 5년 이하, 11~15년 교사들은 일상생활기능을 56.5%, 52.6%로 과반수이상 나타났으며, 6~10년, 16년 이상의 교사들은 51.1%, 60.6%로 대부분 자립생활 기능으로 응답하였다.

3) 전환교육의 요소를 포함한 학부모 상담

<표 5> 전환교육의 요소를 포함한 학부모 상담 (N=120)

| 구분 | 영역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계 | χ ² |
|----------------|--------|-----------|---------|----|----------------|
| | | N(%) | N(%) | | |
| 성별 | 남 | 32(91.4) | 3(8.6) | 35 | .674 |
| | 여 | 81(95.3) | 4(4.7) | 85 | |
| 연령 | 20대 | 23(95.8) | 1(4.2) | 24 | 1.776 |
| | 30대 | 52(91.2) | 5(8.8) | 57 | |
| | 40대 이상 | 38(97.4) | 1(2.6) | 39 | |
| 학년 담당 과정 | 중2 | 12(100.0) | 0(0) | 12 | 3.720 |
| | 중3 | 32(91.4) | 3(8.6) | 35 | |
| | 고1 | 16(88.9) | 2(11.1) | 18 | |
| | 고2 | 25(100.0) | 0(0) | 25 | |
| | 고3 | 28(93.3) | 2(6.7) | 30 | |
| 교직 경력 | 5년 이하 | 20(87.0) | 3(13.0) | 23 | 5.141 |
| | 6~10년 | 43(95.6) | 2(4.4) | 45 | |
| | 11~15년 | 17(89.5) | 2(10.5) | 19 | |
| | 16년 이상 | 33(100.0) | 0(0) | 33 | |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환교육의 요소를 포함하여 학부모 상담 문항을 살펴보면, 모든 배경변인에 따른 응답에서 대부분이 그렇다고 나타났다. 성별을 살펴보면, 남교사 91.4%, 여교사 95.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연령을 살펴보면, 20대, 30대, 40대 이상 모두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95.8%, 91.2%, 97.4%로 나타났다. 학년 담당 과정에서는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교사들의 그렇다는 응답이 100.0%로 나타났다. 교직 경력으로는 5년 이하, 6~10년, 11~15년, 16년 이상에서 87.0%, 95.6%, 89.5%, 100.0%로 대부분 그렇다는 응답이 나왔다.

4) 전환교육을 가정과 연계하여 실시

<표 6> 전환교육을 가정과 연계하여 실시 (N=120)

| 구분 | 영역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계 | χ^2 |
|----------------|--------|-----------|----------|----|----------|
| | | N(%) | N(%) | | |
| 성별 | 남 | 29(82.9) | 6(17.1) | 35 | .131 |
| | 여 | 68(80.0) | 17(20.0) | 85 | |
| 연령 | 20대 | 14(58.3) | 10(41.7) | 24 | 11.253** |
| | 30대 | 47(82.5) | 10(17.5) | 57 | |
| | 40대 이상 | 36(92.3) | 3(7.7) | 39 | |
| 학년 담당 과정 | 중2 | 12(100.0) | 0(0) | 12 | 7.546 |
| | 중3 | 27(77.1) | 8(22.9) | 35 | |
| | 고1 | 14(77.8) | 4(22.2) | 18 | |
| | 고2 | 17(68.0) | 8(32.0) | 25 | |
| | 고3 | 27(90.0) | 3(10.0) | 30 | |
| 교직 경력 | 5년 이하 | 15(65.2) | 8(34.8) | 23 | 9.481* |
| | 6~10년 | 35(77.8) | 10(22.2) | 45 | |
| | 11~15년 | 15(78.9) | 4(21.1) | 19 | |
| | 16년 이상 | 32(97.0) | 1(3.0) | 33 | |

* $p < .05$, ** $p < .01$

<표 6>는 전환교육을 가정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지에 대한 응답 내용이다. 성별을 살펴보면, 남교사 82.9%, 여교사 80.0%가 가정과 연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령을 살펴보면, 30대, 40대 이상의 그렇다는 응답이 82.5%, 92.3%로 대부분인 것에 비해 20대는 58.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1.7%였다. 유의성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1.253$, $p<.001$). 학년 담당 과정을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100.0%), 중학교 3학년(77.1%), 고등학교 1학년(77.8%), 고등학교 2학년(68.0%), 고등학교 3학년(90.0%) 모두에서 대부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 경력을 살펴보면, 5년 이하는 그렇다는 응답이 65.2%, 그렇지 않다는 34.8%였다. 6~10년(77.8%), 11~15년(78.9%), 16년 이상(97.0%)의 교사들은 대부분 그렇다는 응답이 나타났다. 유의성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9.481$, $p<.05$).

5) 가정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는 전환교육의 주된 내용

<표 7> 가정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는 전환교육의 주된 내용 (N=97)
(실시하는 경우만 응답)

| 구분 | 영역 | 직업교육 | 입시교육 | 통합교육 | 자립생활 | 이동교육 | 계 | χ^2 |
|----------------|--------|----------|--------|--------|-----------|--------|----|----------|
| | | N(%) | N(%) | N(%) | N(%) | N(%) | | |
| 성별 | 남 | 6(20.7) | 1(3.4) | 2(6.9) | 20(69.0) | 0(0) | 29 | 3.906 |
| | 여 | 10(14.7) | 1(1.5) | 1(1.5) | 54(79.4) | 2(2.9) | 68 | |
| 연령 | 20대 | 0(0) | 0(0) | 0(0) | 14(100.0) | 0(0) | 14 | 7.124 |
| | 30대 | 9(19.1) | 2(4.3) | 2(4.3) | 33(70.2) | 1(2.1) | 47 | |
| | 40대 이상 | 7(19.4) | 0(0) | 1(2.8) | 27(75.0) | 1(2.8) | 36 | |
| 학년 담당 과정 | 중2 | 0(0) | 0(0) | 0(0) | 12(100.0) | 0(0) | 12 | 22.802 |
| | 중3 | 6(22.2) | 0(0) | 1(3.7) | 19(70.3) | 1(3.7) | 27 | |
| | 고1 | 0(0) | 1(7.1) | 0(0) | 13(92.9) | 0(0) | 14 | |
| | 고2 | 1(5.9) | 0(0) | 0(0) | 16(94.1) | 0(0) | 17 | |
| | 고3 | 9(33.3) | 1(3.7) | 2(7.4) | 14(51.9) | 1(3.7) | 27 | |
| 교직 경력 | 5년 이하 | 1(6.7) | 0(0) | 1(6.7) | 13(86.7) | 0(0) | 15 | 9.052 |
| | 6~10년 | 6(17.1) | 1(2.9) | 1(2.9) | 27(77.1) | 0(0) | 35 | |
| | 11~15년 | 4(26.7) | 1(6.7) | 0(0) | 9(60.0) | 1(6.7) | 15 | |
| | 16년 이상 | 5(15.6) | 0(0) | 1(3.1) | 25(78.1) | 1(3.1) | 32 | |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정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는 전환교육의 주된 내용을 변인별로 살펴보았다. 성별을 살펴보면, 남교사의 69.0%, 여교사의 79.4%가 자립생활 교육을 대부분 응답하였다. 연령을 살펴보면, 20대 모두가 자립생활 교육으로 나타났으며, 30대, 40대 이상은 70.2%, 75.0%가 자립생활 교육을 주로 실시한다고 응답하였다. 학년 담당 과정을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 교사 모두가 자립생활 교육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3학년(70.3%), 고등학교 1학년(92.9%), 고등학교 2학년(94.1%) 교사 또한 자립생활로 대부분 응답하였다. 고등학교 3학년 교사는 자립생활 교육이 51.9%, 직업교육이 33.3%로 나타났다. 교직 경력으로 살펴보면, 5년 이하(86.7%), 6~10년(77.1%), 11~15년(60.0%), 16년 이상(78.1%)로 과반수 이상이 자립생활 교육으로 응답하였다.

6) 전환교육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연계

<표 8> 전환교육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연계 (N=120)

| 구분 | 영역 | 연계한다 | 연계하지 않는다 | 계 | χ^2 |
|----------------|--------|----------|----------|----|----------|
| | | N(%) | N(%) | | |
| 성별 | 남 | 18(51.4) | 17(48.6) | 35 | 9.006** |
| | 여 | 18(21.2) | 67(78.8) | 85 | |
| 연령 | 20대 | 5(20.8) | 19(79.2) | 24 | 10.847** |
| | 30대 | 12(21.0) | 45(79.0) | 57 | |
| | 40대 이상 | 19(48.7) | 20(51.3) | 39 | |
| 학년 담당 과정 | 중2 | 4(33.3) | 8(66.7) | 12 | 1.153 |
| | 중3 | 9(25.7) | 26(74.3) | 35 | |
| | 고1 | 7(38.9) | 11(61.1) | 18 | |
| | 고2 | 7(28.0) | 18(72.0) | 25 | |
| | 고3 | 9(30.0) | 21(70.0) | 30 | |
| 교직 경력 | 5년 이하 | 5(21.7) | 18(78.3) | 23 | 11.152* |
| | 6~10년 | 8(17.8) | 37(82.2) | 45 | |
| | 11~15년 | 7(36.8) | 12(63.2) | 19 | |
| | 16년 이상 | 16(48.5) | 17(51.5) | 33 | |

* $p < .05$, ** $p < .01$

<표 8>는 전환교육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연계하는지에 대한 변인별 분석 내용이다. 성별을 살펴보면, 남교사의 51.4%는 연계한다, 48.6%는 연계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여교사는 78.8%로 대부분이 연계하지 않는다고 나타났다. 유의성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9.006$, $p<.01$). 연령을 살펴보면, 20대 79.2%, 30대 79.0%로 대부분이 연계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40대 이상의 교사는 51.3%로 과반수 이상이 연계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유의성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0.847$, $p<.01$). 학년 담당 과정을 살펴보면, 중학교 3학년(74.3%), 고등학교 2학년(72.0%), 고등학교 3학년(70.0%) 교사들은 대부분이 연계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교사들은 66.7%, 61.1%가 연계하지 않는다고 나타났다. 교직 경력에서는 5년 이하(78.3%), 6~10년(82.2%), 11~15년(63.2%) 교사 대부분이 연계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16년 이상의 교사는 51.5%가 연계하지 않으며, 48.5%는 연계한다고 하였다. 유의성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1.152$, $p<.05$).

7)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전환교육의 주된 내용

<표 9>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전환교육의 주된 내용 (N=36)
(관련 기관과 연계하는 경우만 응답)

| 구분 | 영역 | 직업교육 | 입시교육 | 통합교육 | 자립생활 | 이동교육 | 계 | χ^2 |
|----------------|--------|-----------|---------|---------|---------|------|----|----------|
| | | N(%) | N(%) | N(%) | N(%) | N(%) | | |
| 성별 | 남 | 14(82.4) | 0(0) | 1(5.9) | 2(11.8) | 0(0) | 17 | 2.520 |
| | 여 | 17(89.5) | 1(5.3) | 0(0) | 1(5.3) | 0(0) | 19 | |
| 연령 | 20대 | 3(75.0) | 0(0) | 0(0) | 1(25.0) | 0(0) | 4 | 5.567 |
| | 30대 | 11(84.6) | 0(0) | 0(0) | 2(15.4) | 0(0) | 13 | |
| | 40대 이상 | 17(89.5) | 1(5.3) | 1(5.3) | 0(0) | 0(0) | 19 | |
| 학년 담당 과정 | 중2 | 3(100.0) | 0(0) | 0(0) | 0(0) | 0(0) | 3 | 11.313 |
| | 중3 | 6(66.7) | 0(0) | 1(11.1) | 2(22.2) | 0(0) | 9 | |
| | 고1 | 6(85.7) | 1(14.3) | 0(0) | 0(0) | 0(0) | 7 | |
| | 고2 | 7(100.0) | 0(0) | 0(0) | 0(0) | 0(0) | 7 | |
| | 고3 | 9(90.0) | 0(0) | 0(0) | 1(10.0) | 0(0) | 10 | |
| 교직 경력 | 5년 이하 | 3(60.0) | 0(0) | 0(0) | 2(40.0) | 0(0) | 5 | 18.216* |
| | 6~10년 | 8(100.0) | 0(0) | 0(0) | 0(0) | 0(0) | 8 | |
| | 11~15년 | 4(57.1) | 1(14.3) | 1(14.3) | 1(14.3) | 0(0) | 7 | |
| | 16년 이상 | 16(100.0) | 0(0) | 0(0) | 0(0) | 0(0) | 16 | |

* $p < .05$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전환교육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성별에서 남교사 82.4%, 여교사 89.5%로 대부분이 직업교육으로 응답하였다. 연령을 살펴보면, 20대 교사들은 75.0%가 직업교육, 25.0%가 자립생활교육이라고 응답하였다. 30대는 84.6%, 40대 이상은 89.5%로 대부분이 직업교육으로 응답하였다. 학년 담당 과정을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교사들 모두가 직업교육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3학년 교사들은 66.7%가 직업교육, 자립생활교육이 22.2%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1학년 교사들은 85.7%, 고등학교 3학년은 90.0%로 대부분이 직업교육을 실시한다고 응답하였다. 교직 경력에서는 5년 이하의 교사들은 60.0%가 직업교육, 40.0%가 자립생활 교육으로 응답하였다. 6~10년, 16년 이상은 모두가 직업교육으로 나타났으며, 11~15년의 교사들은 직업교육이 57.1%로 과반수이상이었다. 유의성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chi^2=18.216, p<.05$).

8) 전환교육을 위해 연계하고 있는 관련 기관 종류

<표 10> 전환교육을 위해 연계하고 있는 관련 기관 종류 (N=36)
 (관련 기관과 연계하는 경우만 응답)

| 구분 | 영역 | 지원센터 | 장애인 고용 공단 | 사업체 | 장애인 복지관 | 계 | χ ² |
|----------------|--------|---------|--------------|---------|------------|----|----------------|
| | | N(%) | N(%) | N(%) | N(%) | | |
| 성별 | 남 | 7(41.2) | 1(5.9) | 0(0) | 9(52.9) | 17 | 2.430 |
| | 여 | 5(26.3) | 1(5.3) | 2(10.5) | 11(57.9) | 19 | |
| 연령 | 20대 | 1(25.0) | 0(0) | 0(0) | 3(75.0) | 4 | 2.633 |
| | 30대 | 5(38.5) | 1(7.7) | 0(0) | 7(53.8) | 13 | |
| | 40대 이상 | 6(31.6) | 1(5.3) | 2(10.5) | 10(52.6) | 19 | |
| 학년 담당 과정 | 중2 | 0(0) | 0(0) | 0(0) | 3(100.0) | 3 | 14.629 |
| | 중3 | 3(33.3) | 2(22.2) | 1(11.1) | 3(33.3) | 9 | |
| | 고1 | 3(42.9) | 0(0) | 1(14.3) | 3(42.9) | 7 | |
| | 고2 | 1(14.3) | 0(0) | 0(0) | 6(85.7) | 7 | |
| | 고3 | 5(50.0) | 0(0) | 0(0) | 5(50.0) | 10 | |
| 교직 경력 | 5년 이하 | 1(20.0) | 1(20.0) | 0(0) | 3(60.0) | 5 | 8.056 |
| | 6~10년 | 2(25.0) | 0(0) | 0(0) | 6(75.0) | 8 | |
| | 11~15년 | 3(42.9) | 1(14.3) | 1(14.3) | 2(28.6) | 7 | |
| | 16년 이상 | 6(37.5) | 0(0) | 1(6.3) | 9(56.3) | 16 | |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환교육을 위해 연계하고 있는 관련 기관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다. 성별을 살펴보면, 남교사의 52.9%가 장애인 복지관이라 응답하였으며, 41.2%는 특수교육 지원센터라 응답하였다. 여교사는 57.9%가 장애인 복지관, 26.3%가 특수교육 지원센터로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20대의 75.0%로 대부분이 장애인 복지관과 연계한다고 응답하였다. 30대 53.8%, 40대 이상 52.6%로 과반수 이상이 장애인 복지관과 연계한다고 하였다. 학년 담당 과정을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 교사들 모두가 장애인 복지관이라 응답하였다.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교사들은 특수교육 지원센터와 장애인 복지관이 33.3%, 42.9%, 50.0%로 모두 동일한 응답을 보였다. 고등학교 2학년 교사들은 85.7%로 대부분이 장애인 복지관이라고 응답하였다. 교직 경력을 살펴보면, 5년 이하, 6~10년의 교사는 60.0%, 75.0%로 대부분이 장애인 복지관으로 나타났다. 11~15년의 교사는 42.9%가 특수교육 지원센터라고 응답하였다. 16년 이상의 교사는 56.3%가 장애인 복지관, 37.5%가 특수교육 지원센터로 나타났다.

2. 특수학교 중등 발달장애학생 전환교육 운영 방안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

1) 중등 발달장애학생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전환교육 영역

<표 11> 중등 발달장애학생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전환교육 영역 (N=120)

| 구분 | 영역 | 일상생활 기능 | 지역사회 참여 기능 | 자립생활 기능 | 기초직업 기능 | 고등교육 기관 진학 | 계 | χ^2 |
|----------------|--------|------------|------------------|------------|------------|------------------|----|----------|
| | | N(%) | N(%) | N(%) | N(%) | N(%) | | |
| 성별 | 남 | 7(20.0) | 6(17.1) | 17(48.6) | 4(11.4) | 1(2.9) | 35 | 3.295 |
| | 여 | 15(17.6) | 17(20.0) | 38(44.7) | 15(17.6) | 0(0) | 85 | |
| 연령 | 20대 | 3(12.5) | 11(45.8) | 9(37.5) | 1(4.2) | 0(0) | 24 | 17.017* |
| | 30대 | 10(17.5) | 8(14.0) | 26(45.6) | 12(21.1) | 1(1.8) | 57 | |
| | 40대 이상 | 9(23.1) | 4(10.3) | 20(51.3) | 6(15.4) | 0(0) | 39 | |
| 학년 담당 과정 | 중2 | 0(0) | 0(0) | 8(66.7) | 4(33.3) | 0(0) | 12 | 19.887 |
| | 중3 | 4(11.4) | 9(25.7) | 17(48.6) | 5(14.3) | 0(0) | 35 | |
| | 고1 | 4(22.2) | 5(27.8) | 8(44.4) | 1(5.6) | 0(0) | 18 | |
| | 고2 | 8(32.0) | 2(8.0) | 11(44.0) | 4(16.0) | 0(0) | 25 | |
| | 고3 | 6(20.0) | 7(23.3) | 11(36.7) | 5(16.7) | 1(3.3) | 30 | |
| 교직 경력 | 5년 이하 | 3(13.0) | 8(34.8) | 10(43.5) | 2(8.7) | 0(0) | 23 | 23.600* |
| | 6~10년 | 9(20.0) | 7(15.6) | 23(51.1) | 5(11.1) | 1(2.2) | 45 | |
| | 11~15년 | 4(21.1) | 6(31.6) | 2(10.5) | 7(36.8) | 0(0) | 19 | |
| | 16년 이상 | 6(18.2) | 2(6.1) | 20(60.6) | 5(15.2) | 0(0) | 33 | |

* $p < .05$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등 발달장애학생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전환교육 영역을 살펴보면, 성별에서 남교사의 48.6%, 여교사의 44.7%가 자립생활 기능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일상생활 기능은 남교사 20.0%, 여교사 17.6%로 그 뒤를 따랐다. 연령에서는 30대 45.6%, 40대 이상 51.3%로 자립생활 기능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유의성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7.017$, $p<.05$). 학년 담당 과정에서는 모든 변인에서 자립생활 기능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교직 경력을 살펴보면, 5년 이하, 6~10년, 16년 이상에서 43.5%, 51.1%, 60.6%로 가장 많은 응답이 자립생활 기능이었다. 11~15년의 교사는 10.5%가 자립생활 기능이었으며, 36.8%가 기초직업기능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유의성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23.600$, $p<.05$).

2) 중등 발달장애학생을 위해 필요한 전환교육 내용

<표 12> 중등 발달장애학생을 위해 필요한 전환교육 내용(우선순위) (N=120)

| 구분 | 영역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계 | χ ² |
|----------------|--------|----------|----------|--------|--------|--------|----|----------------|
| | | 일상생활 | 자립생활 | 직업기능 | 이동기능 | 입시준비 | | |
| | | N(%) | N(%) | N(%) | N(%) | N(%) | | |
| 성별 | 남 | 22(62.9) | 12(34.3) | 1(2.9) | 0(0) | 0(0) | 35 | 1.887 |
| | 여 | 50(58.8) | 30(35.3) | 2(2.4) | 2(2.4) | 1(1.2) | 85 | |
| 연령 | 20대 | 16(66.7) | 7(29.2) | 1(4.2) | 0(0) | 0(0) | 24 | 6.888 |
| | 30대 | 33(57.9) | 21(36.8) | 2(3.5) | 1(1.8) | 0(0) | 57 | |
| | 40대 이상 | 23(59.0) | 14(35.9) | 0(0) | 1(2.6) | 1(2.6) | 39 | |
| 학년 담당 과정 | 중2 | 6(50.0) | 6(50.0) | 0(0) | 0(0) | 0(0) | 12 | 12.440 |
| | 중3 | 19(54.3) | 13(37.1) | 1(2.9) | 2(5.7) | 0(0) | 35 | |
| | 고1 | 10(55.6) | 7(38.9) | 1(5.6) | 0(0) | 0(0) | 18 | |
| | 고2 | 20(80.0) | 5(20.0) | 0(0) | 0(0) | 0(0) | 25 | |
| | 고3 | 17(56.7) | 11(36.7) | 1(3.3) | 0(0) | 1(3.3) | 30 | |
| 교직 경력 | 5년 이하 | 15(65.2) | 7(30.4) | 1(4.3) | 0(0) | 0(0) | 23 | 9.674 |
| | 6~10년 | 25(55.6) | 17(37.8) | 2(4.4) | 1(2.2) | 0(0) | 45 | |
| | 11~15년 | 12(63.2) | 7(36.8) | 0(0) | 0(0) | 0(0) | 19 | |
| | 16년 이상 | 20(60.6) | 11(33.3) | 0(0) | 1(3.0) | 1(3.0) | 33 | |

***p < .001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등 발달장애 학생을 위해 필요한 전환교육 내용을 우선순위별로 살펴보았다. 성별을 살펴보면, 남교사 62.9%, 여교사 58.8%가 일상생활로 응답하였으며, 자립생활도 남교사 34.3%, 여교사 35.3%로 일상생활과 자립생활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연령을 살펴보면, 모든 변인에서 과반수이상 일상생활이 1순위로 나타났으며, 자립생활은 20대 29.2%, 30대 36.8%, 40대 이상 35.9%로 그 뒤를 따랐다. 학년 담당 과정을 살펴보면, 모든 변인에서 과반수이상이 일상생활을 1순위로 응답하였으며, 중학교 2학년 교사는 자립생활이 50.0%로 나타났다. 교직 경력을 살펴보면, 5년 이하(65.2%), 6~10년(55.6%), 11~15년(63.2%), 16년 이상(60.6%)로 과반수이상이 1순위로 일상생활을 응답하였다. 자립생활도 2순위로 각 30.4%, 37.8%, 36.8%, 33.3%로 그 뒤를 따랐다.

3) 전환교육 관련 학부모와 상담 또는 가정과 연계

<표 13> 전환교육 관련 학부모와 상담 또는 가정과 연계 (N=120)

| 구분 | 영역 | 잘 이루어진다 |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 계 | χ ² |
|----------|--------|----------|-------------|----|----------------|
| | | N(%) | N(%) | | |
| 성별 | 남 | 16(45.7) | 19(54.3) | 35 | .048 |
| | 여 | 37(43.5) | 48(56.5) | 85 | |
| 연령 | 20대 | 8(33.3) | 16(66.7) | 24 | 2.339 |
| | 30대 | 29(50.9) | 28(49.1) | 57 | |
| | 40대 이상 | 16(41.3) | 23(59.0) | 39 | |
| 학년 담당 과정 | 중2 | 7(58.3) | 5(41.7) | 12 | 3.561 |
| | 중3 | 16(45.7) | 19(54.3) | 35 | |
| | 고1 | 5(27.8) | 13(72.2) | 18 | |
| | 고2 | 10(40.0) | 15(60.0) | 25 | |
| | 고3 | 15(50.0) | 15(50.0) | 30 | |
| 교직 경력 | 5년 이하 | 4(17.4) | 19(82.6) | 23 | 12.404** |
| | 6~10년 | 23(51.1) | 22(48.9) | 45 | |
| | 11~15년 | 13(68.4) | 6(31.6) | 19 | |
| | 16년 이상 | 13(39.4) | 20(60.6) | 33 | |

**p < .01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환교육 관련 학부모와 상담 또는 가정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문항을 살펴보면, 성별에서 남교사 54.3%, 여교사 56.5%로 과반수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나타났다. 반면, 잘 이루어진다는 응답도 남교사 45.7%, 여교사 43.5%로 나타났다. 연령을 살펴보면, 20대(66.7%), 40대 이상(59.0%) 교사는 과반수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30대 교사의 50.9%는 잘 이루어진다고 나타났다. 학년 담당 과정을 살펴보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교사는 54.3%, 72.2%, 60.0%, 50.0%로 과반수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중학교 2학년 58.3%, 고등학교 3학년 교사의 50.0%는 잘 이루어진다고 응답하였다. 교직 경력을 살펴보면, 5년 이하 82.6%, 16년 이상 60.6%로 대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6~10년, 11~15년의 교사 51.1%, 68.4%는 잘 이루어진다고 나타났다. 유의성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2.404, p<.01$).

4) 전환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또는 가정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주된 이유

<표 14> 전환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또는 가정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주된 이유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경우만 응답) (N=67)

| 구분 | 영역 | 학부모가 다른 영역 희망 | 교사가 전환교육 희망 않음 | 학부모가 전환교육 잘 모름 | 교사가 전환교육 잘 모름 | 기타 | 계 | χ^2 |
|----------|--------|---------------|----------------|----------------|---------------|---------|----|----------|
| | | N(%) | N(%) | N(%) | N(%) | | | |
| 성별 | 남 | 3(15.8) | 0(0) | 7(36.8) | 9(47.4) | 0(0) | 19 | .417 |
| | 여 | 8(16.7) | 1(2.1) | 15(31.3) | 22(45.8) | 2(4.2) | 48 | |
| 연령 | 20대 | 1(6.3) | 0(0) | 7(43.8) | 8(50.0) | 0(0) | 16 | 5.961 |
| | 30대 | 6(21.4) | 0(0) | 7(25.0) | 15(53.6) | 0(0) | 28 | |
| | 40대 이상 | 4(17.4) | 1(4.3) | 8(34.8) | 8(34.8) | 2(8.7) | 23 | |
| 학년 담당 과정 | 중2 | 0(0) | 0(0) | 1(20.0) | 4(80.0) | 0(0) | 5 | 16.489 |
| | 중3 | 1(5.3) | 1(5.3) | 6(31.6) | 11(57.9) | 0(0) | 19 | |
| | 고1 | 6(46.2) | 0(0) | 4(30.8) | 3(23.1) | 0(0) | 13 | |
| | 고2 | 2(13.3) | 0(0) | 6(40.0) | 7(46.7) | 0(0) | 15 | |
| | 고3 | 2(13.3) | 0(0) | 5(33.3) | 6(40.0) | 2(13.3) | 15 | |
| 교직 경력 | 5년 이하 | 1(5.3) | 0(0) | 6(31.6) | 12(63.2) | 0(0) | 19 | 10.697 |
| | 6~10년 | 4(18.2) | 0(0) | 9(40.9) | 9(40.9) | 0(0) | 22 | |
| | 11~15년 | 3(50.0) | 0(0) | 2(33.3) | 1(16.7) | 0(0) | 6 | |
| | 16년 이상 | 3(15.0) | 1(5.0) | 5(25.0) | 9(45.0) | 2(10.0) | 20 | |

<표 14>는 전환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또는 가정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주된 이유에 대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응답을 한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문항을 분석한 내용이다. 성별을 살펴보면, 남교사 47.4%, 여교사 45.8%로 교사가 전환교육을 잘 모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남교사, 여교사의 36.8%, 31.3%는 학부모가 전환교육을 잘 모른다고 나타났다. 연령을 살펴보면, 20대(50.0%), 30대(53.6%)는 과반수 이상이 교사가 전환교육을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학부모가 전환교육을 잘 모른다는 응답은 각 43.8%, 25.0%였다. 40대 이상은 학부모가 전환교육을 잘 모름, 교사가 전환교육을 잘 모른다는 응답이 34.8%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학년 담당 과정을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 교사의 80.0%로 대부분이 교사가 전환교육을 잘 모른다고 나타났으며, 중학교 3학년은 57.9%가 동일한 응답을 보였다. 고등학교 1, 3학년은 교사가 잘 모른다는 응답이 23.1%, 40.0%, 학부모가 잘 모른다는 응답이 30.8%, 33.3%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2학년은 교사가 잘 모른다는 응답이 46.7%, 학부모가 잘 모른다는 응답이 40.0%로 나타났다. 교직 경력을 살펴보면,

5년 이하가 63.2%로 과반수이상인 교사가 전환교육을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6~10년의 교사는 40.9%로 학부모, 교사가 잘 모른다는 응답이 동일하게 나왔다. 11~15년은 50.0%로 학부모가 다른 영역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16년 이상은 45.0%가 교사, 25.0%가 학부모가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5) 전환교육을 위해 학교와 더불어 관련 기관과의 협력 필요 정도

<표 15> 전환교육을 위해 학교와 더불어 관련 기관과의 협력 필요 정도 (N=120)

| 구분 | 영역 | 전혀 필요 하지 않다 | 조금 필요하다 | 보통이다 | 필요하다 | 많이 필요하다 | 계 | χ^2 |
|----------------|--------|----------------|------------|---------|----------|------------|----|----------|
| | | N(%) | N(%) | N(%) | N(%) | N(%) | | |
| 성별 | 남 | 0(0) | 0(0) | 2(5.7) | 7(20.0) | 26(74.3) | 35 | 2.998 |
| | 여 | 1(1.2) | 0(0) | 3(3.5) | 29(34.1) | 52(61.2) | 85 | |
| 연령 | 20대 | 0(0) | 0(0) | 2(8.3) | 10(41.7) | 12(50.0) | 24 | 10.258 |
| | 30대 | 0(0) | 0(0) | 3(5.3) | 19(33.3) | 35(61.4) | 57 | |
| | 40대 이상 | 1(2.6) | 0(0) | 0(0) | 7(17.9) | 31(79.5) | 39 | |
| 학년 담당 과정 | 중2 | 0(0) | 0(0) | 0(0) | 6(50.0) | 6(50.0) | 12 | 14.605 |
| | 중3 | 0(0) | 0(0) | 2(5.7) | 11(31.4) | 22(62.9) | 35 | |
| | 고1 | 1(5.6) | 0(0) | 0(0) | 6(33.3) | 11(61.1) | 18 | |
| | 고2 | 0(0) | 0(0) | 0(0) | 5(20.0) | 20(80.0) | 25 | |
| | 고3 | 0(0) | 0(0) | 3(10.0) | 8(26.7) | 19(63.3) | 30 | |
| 교직 경력 | 5년 이하 | 0(0) | 0(0) | 3(13.0) | 5(21.7) | 15(65.2) | 23 | 20.054* |
| | 6~10년 | 0(0) | 0(0) | 1(2.2) | 19(42.2) | 25(55.6) | 45 | |
| | 11~15년 | 1(5.3) | 0(0) | 1(5.3) | 7(36.8) | 10(52.6) | 19 | |
| | 16년 이상 | 0(0) | 0(0) | 0(0) | 5(15.2) | 28(84.8) | 33 | |

* $p < .05$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환교육을 위해 학교와 더불어 관련 기관과의 협력 필요 정도를 살펴보면, 성별에서 남교사 74.3%, 여교사 61.2%로 대부분이 많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보였다. 연령을 살펴보면, 20대(50.0%), 30대(61.4%), 40대 이상(79.5%)로 많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20대 41.7%, 30대 33.3%, 40대 이상 17.9%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그 뒤를 따랐다. 학년 담당 과정을 살펴보면, 모든 변인에서 대부분이 필요하다, 많이 필요하다는 응답으로 나타났다. 교직 경력을 살펴보면, 5년 이하, 6~10년, 11~15년의 교사의 65.2%, 55.6%, 52.6%로 과반수이상인 많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보였다. 16년 이상의 교사는 84.8%로 대부분이 많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보였다. 유의성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20.054, p<.05$).

6)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전환교육의 적절한 시기

<표 16>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전환교육의 적절한 시기 (N=120)

| 구분 | 영역 | 초등 저 | 초등 고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공과 | 계 | χ^2 |
|----------------|--------|----------|----------|---------|---------|------|----|----------|
| | | N(%) | N(%) | N(%) | N(%) | N(%) | | |
| 성별 | 남 | 10(28.6) | 16(45.7) | 7(20.0) | 2(5.7) | 0(0) | 35 | 3.559 |
| | 여 | 32(37.6) | 41(48.2) | 7(8.2) | 5(5.9) | 0(0) | 85 | |
| 연령 | 20대 | 8(33.3) | 11(45.8) | 2(8.3) | 3(12.5) | 0(0) | 24 | 4.803 |
| | 30대 | 18(31.6) | 27(47.4) | 9(15.8) | 3(5.3) | 0(0) | 57 | |
| | 40대 이상 | 16(41.0) | 19(48.7) | 3(7.7) | 1(2.6) | 0(0) | 39 | |
| 학년 담당 과정 | 중2 | 5(41.7) | 7(58.3) | 0(0) | 0(0) | 0(0) | 12 | 19.498 |
| | 중3 | 15(42.9) | 14(40.0) | 4(11.4) | 2(5.7) | 0(0) | 35 | |
| | 고1 | 7(38.9) | 8(44.4) | 3(16.7) | 0(0) | 0(0) | 18 | |
| | 고2 | 8(32.0) | 11(44.0) | 6(24.0) | 0(0) | 0(0) | 25 | |
| | 고3 | 7(23.3) | 17(56.7) | 1(3.3) | 5(16.7) | 0(0) | 30 | |
| 교직 경력 | 5년 이하 | 3(13.0) | 11(47.8) | 4(17.4) | 5(21.7) | 0(0) | 23 | 29.098** |
| | 6~10년 | 14(31.1) | 23(51.1) | 8(17.8) | 0(0) | 0(0) | 45 | |
| | 11~15년 | 11(57.9) | 5(26.3) | 1(5.3) | 2(10.5) | 0(0) | 19 | |
| | 16년 이상 | 14(42.4) | 18(54.5) | 1(3.0) | 0(0) | 0(0) | 33 | |

** $p < .01$

<표 16>은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전환교육을 실시한다면, 어느 시기부터 실시하는가에 대한 인식 문항 분석이다. 성별을 살펴보면, 남교사 45.7%, 여교사 48.2%로 초등학교 고학년이 가장 많은 응답이 나왔으며, 초등학교 저학년은 남교사 28.6%, 여교사 37.6%로 그 뒤를 따랐다. 연령을 살펴보면, 20대 45.8%, 30대 47.4%, 40대 이상 48.7%로 초등학교 고학년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뒤로 초등학교 저학년이 33.3%, 31.6%, 41.0%로 나타났다. 학년 담당 과정을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58.3%), 중학교 3학년(40.0%), 고등학교 1학년(44.4%), 고등학교 2학년(44.0%), 고등학교 3학년(56.7%)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교 저학년이 나머지 변인에서 그 다음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 경력을 살펴보면, 5년 이하 47.8%, 6~10년 51.1%, 16년 이상 54.5%로 초등학교 고학년이 가장 많은 응답이었으며, 11~15년의 교사는 57.9%가 초등학교 저학년을, 초등학교 고학년은 26.3%로 나타났다. 유의성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29.098, p<.01$).

7) 우리나라 실정에서 전환교육의 실천은 아직 도전적이고 어려운 실정

<표 17> 우리나라 실정에서 전환교육의 실천은 아직 도전적이고 어려운 실정 (N=120)

| 구분 | 영역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계 | χ ² |
|----------|--------|-----------|--------|---------|----------|----------|----|----------------|
| | | N(%) | N(%) | N(%) | N(%) | N(%) | | |
| 성별 | 남 | 2(5.7) | 2(5.7) | 9(25.7) | 19(54.3) | 3(8.6) | 35 | 6.895 |
| | 여 | 1(1.2) | 2(2.4) | 6(7.1) | 64(75.3) | 12(14.1) | | |
| 연령 | 20대 | 0(0) | 0(0) | 1(4.2) | 20(83.3) | 3(12.5) | 24 | 15.744* |
| | 30대 | 0(0) | 1(1.8) | 5(8.8) | 42(73.7) | 9(15.8) | 57 | |
| | 40대 이상 | 3(7.7) | 3(7.7) | 9(23.1) | 21(53.8) | 3(7.7) | 39 | |
| 학년 담당 과정 | 중2 | 0(0) | 0(0) | 3(25.0) | 9(75.0) | 0(0) | 12 | 26.724* |
| | 중3 | 0(0) | 2(5.7) | 4(11.4) | 25(71.4) | 4(11.4) | 35 | |
| | 고1 | 3(16.7) | 0(0) | 4(22.2) | 10(55.6) | 1(5.6) | 18 | |
| | 고2 | 0(0) | 1(4.0) | 2(8.0) | 21(84.0) | 1(4.0) | 25 | |
| | 고3 | 0(0) | 1(3.3) | 2(6.7) | 18(60.0) | 9(30.0) | 30 | |
| 교직 경력 | 5년 이하 | 0(0) | 0(0) | 3(13.0) | 16(69.6) | 4(17.4) | 23 | 15.098 |
| | 6~10년 | 0(0) | 1(2.2) | 3(6.7) | 33(73.3) | 8(17.8) | 45 | |
| | 11~15년 | 0(0) | 1(5.3) | 3(15.8) | 15(78.9) | 0(0) | 19 | |
| | 16년 이상 | 3(9.1) | 2(6.1) | 6(18.2) | 19(57.6) | 3(9.1) | 33 | |

*p < .05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실정에서 전환교육의 실천은 아직 도전적이고 어려운 실정인가에 대한 문항을 살펴보면, 성별에서 남교사 54.3%, 여교사 75.3%로 과반수이상 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연령을 살펴보면, 20대(83.3%), 30대(73.7%), 40대 이상(53.8%)의 모든 변인에서 과반수이상 그렇다는 응답을 보였다. 유의성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5.744$, $p<.05$). 학년 담당 과정을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75.0%), 중학교 3학년(71.4%), 고등학교 1학년(55.6%), 고등학교 2학년(84.0%), 고등학교 3학년(60.0%) 교사 과반수이상 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고등학교 1학년 교사 22.2%는 보통이다, 고등학교 3학년 교사 30.0%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유의성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26.724$, $p<.05$). 교직 경력을 살펴보면, 5년 이하(69.6%), 16년 이상(57.6%)로 그렇다는 응답이 과반수이상이었다. 6~10년(73.3%), 11~15년(78.9%)의 교사는 대부분이 그렇다는 응답이었다.

8) 전환교육의 실현이 아직 도전적이고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한 주된 이유

<표 18> 전환교육의 실현이 아직 도전적이고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한 주된 이유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표기한 경우만 응답) (N=98)

| 구분 | 영역 | 교육과정 | 시설, 예산 | 가정연계 | 교사 전문성 | 기관연계 | 지원체제 | 사회적 인식/운영시간 | 계 | χ^2 |
|----------|--------|----------|--------|---------|--------|---------|----------|-------------|----|----------|
| | | N(%) | N(%) | N(%) | N(%) | N(%) | N(%) | N(%) | | |
| 성별 | 남 | 7(30.4) | 2(8.7) | 3(13.0) | 2(8.7) | 2(8.7) | 7(30.4) | 0(0) | 23 | 3.868 |
| | 여 | 31(41.3) | 2(2.7) | 9(12.0) | 2(2.7) | 9(12.0) | 22(29.3) | 0(0) | 75 | |
| 연령 | 20대 | 13(56.5) | 2(8.7) | 2(8.7) | 0(0) | 0(0) | 6(26.1) | 0(0) | 23 | 14.146 |
| | 30대 | 15(30.0) | 0(0) | 6(12.0) | 3(6.0) | 8(16.0) | 18(36.0) | 0(0) | 50 | |
| | 40대 이상 | 10(40.0) | 2(8.0) | 4(16.0) | 1(4.0) | 3(12.0) | 5(20.0) | 0(0) | 25 | |
| 학년 담당 과정 | 중2 | 2(22.2) | 0(0) | 2(22.2) | 0(0) | 0(0) | 5(55.6) | 0(0) | 9 | 28.522 |
| | 중3 | 12(40.0) | 0(0) | 1(3.3) | 1(3.3) | 5(16.7) | 11(36.7) | 0(0) | 30 | |
| | 고1 | 5(41.7) | 0(0) | 1(8.3) | 1(8.3) | 4(33.3) | 1(8.3) | 0(0) | 12 | |
| | 고2 | 9(39.1) | 2(8.7) | 2(8.7) | 2(8.7) | 1(4.3) | 7(30.4) | 0(0) | 23 | |
| | 고3 | 10(41.7) | 2(8.3) | 6(25.0) | 0(0) | 1(4.2) | 5(20.8) | 0(0) | 24 | |
| 교직경력 | 5년 이하 | 8(38.1) | 2(9.5) | 3(14.3) | 2(9.5) | 0(0) | 6(28.6) | 0(0) | 21 | 25.287* |
| | 6~10년 | 16(41.0) | 0(0) | 5(12.8) | 1(2.6) | 8(20.5) | 9(23.1) | 0(0) | 39 | |
| | 11~15년 | 3(18.8) | 0(0) | 2(12.5) | 1(6.3) | 0(0) | 10(62.5) | 0(0) | 16 | |
| | 16년 이상 | 11(50.0) | 2(9.1) | 2(9.1) | 0(0) | 3(13.6) | 4(18.2) | 0(0) | 22 | |

* $p < .05$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환교육의 실현이 아직 도전적이고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한 주된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성별에서 남교사 30.4%, 여교사 41.3%로 적절한 교육과정 또는 자료의 부족이 가장 많은 응답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교사 30.4%, 여교사 29.3%는 지원체제의 미비라는 응답이 그 뒤를 따랐다. 연령을 살펴보면, 20대(56.5%), 40대 이상(40.0)로 적절한 교육과정 또는 자료의 부족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또한 30대 교사 36.0%는 지원 체제 미비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학년 담당 과정을 살펴보면, 적절한 교육과정 또는 자료의 부족이 중학교 3학년

(40.0%), 고등학교 1학년(41.7%), 고등학교 2학년(39.1%), 고등학교 3학년(41.7%)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지원 체제 미비는 중학교 2학년 교사가 55.6%로 과반수 이상이 응답하였으며,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은 36.7%, 30.4%로 그 뒤를 따랐다. 또한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교사 22.2%, 25.0%는 가정과의 연계 부족, 고등학교 1학년 교사 33.3%는 기관과의 연계 부족으로 응답하였다. 교직 경력을 살펴보면, 5년 이하(38.1%), 6~10년(41.0%), 16년 이상(50.0%)로 적절한 교육과정 또는 자료의 부족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11~15년의 교사는 62.5%가 지원체제 미비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또한 5년 이하(28.6%), 6~10년(23.1%), 16년 이상(18.2%)의 교사는 지원체제 미비가 그 뒤를 따랐으며, 11~15년의 교사 18.8%는 적절한 교육과정의 부족이 그 뒤를 따랐다. 유의성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25.287, p<.05$).

IV. 논의 및 제언

1. 특수학교 중등 발달장애학생 전환교육 운영 실태

특수학교의 교사들은 중등 발달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졸업이후 뿐만 아니라 취업·고등교육·지역사회 참여·주거·이동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의 전환교육계획 수립을 대부분이 작성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등발달장애학생의 전환교육프로그램 운영 실태 및 담당자 인식(박철, 2016)에서 다수의 기관이 전환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는 결과와 상이한 것이다. 이는 특수학교의 경우 해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따로 개별화전환교육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환경적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전환교육은 발달장애학생이 학교 졸업 후 독립된 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현재 전환교육 지도의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자립생활과 일상생활 기능이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특수학교에서 전환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취업을 위한 직업생활교육을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다는 배명자(2011)의 연구결과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의 전환교육으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활성화를 통해 전환교육지원 거점센터 운영과 같은 장애학생의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위한 노력이 있기 때문이다(교육부, 2017). 진정한 전환교육은 직업생활을 넘어서 자립생활, 일상생활, 사회적 통합까지

현실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전환교육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학생의 고유한 교육적 요구에 기초한 체계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부분이 전환교육의 요소를 포함하여 학부모 상담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정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경우 역시 높은 편이었다. 가정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전환교육의 주된 내용으로는 자립생활교육이 주를 이루었고, 이는 포괄적인 개념의 전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의 전환교육에 대한 인지 정도, 전환성과 향상을 위한 부모의 요구 사항을 조사한 김요섭(2014)의 연구에서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부모도 자녀의 교육을 위한 교사와의 동일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가정에서 지도할 수 있는 일상생활 기술, 자기보호 및 옹호기술, 지역사회 참여 기술 등의 습득을 위해 상담 이외에도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환교육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연계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연계한다는 응답이 과반수이상이었다.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전환교육의 주된 내용으로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일상생활기능, 자립생활훈련과 같은 포괄적인 전환교육의 개념이 아닌 직업기능훈련이 대부분으로 나타나 진로 및 직업교육 위주로 관련기관과 연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혜영(2005)과 강은혜(2012)의 결과와 같았으며, 지적장애 학생을 위해 전환교육 내용을 보다 다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관련기관으로는 장애인 복지관이 과반수이상이었으며, 특수교육지원센터도 응답률이 높았다. 그러나 이들 기관 이외에도 좀 더 다양한 유관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특수학교 중등 발달장애학생 전환교육 운영 방안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

중등 발달장애학생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전환교육 영역으로 특수교사들은 자립생활기능과 일상생활기능을 대부분 선택하였으며, 기초직업기능 및 기술은 15.8%로 현재 특수교사들은 포괄적인 개념의 전환교육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구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살펴본 결과 1순위는 일상생활기능이었으며, 2순위는 자립생활기능이 나와 앞의 내용과 일치한다. 이는 이은정(2011)의 연구에서 학부모들이 특수교육의 목적으로 일상생활 자립을 가장 많이 응답한 결과와 권영미(2005)에서 전환교육 목표로 지역사회의 적응과 통합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취업 및 고용이 나온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윤태성(2008)은 법적인 측면에서 직업 및 진로교육의 한계를 넘어서는 전환교육의 개념을 도입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

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렇듯 이전의 전환교육이 취업을 위한 진로 및 직업교육으로 인식되던 것에서 장애학생의 독립적인 성인생활을 위한 일상생활 및 자립생활 영역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포괄적인 개념의 전환교육 필요성을 인식하고, 추후 예비특수교사 교육, 현직 특수교사 및 학부모 대상 연수, 자료의 개발 등이 필요할 것이다.

전환교육 관련 학부모와 상담 또는 가정과 연계를 살펴보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응답과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경우 그 주된 이유는 교사가 전환교육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학부모가 전환교육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은 32.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환교육에 대해 교사가 잘 모른다는 응답이 많이 나타난 것은 교사의 전문성 부족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교사의 전문성을 확대시키기 위해 연수 기회의 증대, 전환교육에 대한 인식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학부모가 전환교육을 잘 모른다는 응답을 통해 학부모에게도 전환교육과 관련된 상담과 연수가 필요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은정(2011)의 연구에서 전환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은 높은 반면,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환교육 관련 실행수준의 낮음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전환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전환교육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의향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긍정적인 반응이라 보았다. 하은애(2016)는 중등이후교육에 대한 부모의 지원은 교육, 자기결정, 일상생활, 대학, 꿈의 모든 부분에서 높은 상관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박철(2016)은 전환교육은 가정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전환교육을 위해 교사와 가정이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전환교육을 위해 학교와 더불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가에 대한 문항에서는 대부분이 필요하다고 많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보였다. 이는 김영주(2009)의 연구에서 지역 사회와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결과와 같다. 전환교육은 지역사회 및 실제 현장인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특수교사들은 관련기관과의 연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현실적 제약으로 연계의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서로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발달장애학생의 전환교육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전환교육의 실행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며, 관련 기관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전환교육을 실시한다면, 어느 시기부터 실시하는 것이 좋겠는가에 대해 초등학교부터 전환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권영미(2005)의 연구에서 전환교육 계획시기를 중학교부터 작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결과보다 더 하향조정된 것이며, 이은정(2011)의 연구에서 학부모들 대부분이 초등학교부터 전환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Ryan과 Mary(2010)는 전환 계획을 가급적 빨리 구성해야

성공적인 전환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오은영(2009)은 초등학교 때부터의 전환교육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미국장애아 분과협회에서 제시한 기본원칙에서 진로발달은 평생동안 지속되는 과정으로 본 것과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 대상은 중등 교사들이었지만, 전환교육을 초등학교 시기부터 일찍 시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선행연구들과 비슷한 의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전환교육이 하루라도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실정에서 전환교육의 실천이 아직 도전적이고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하는 교사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적절한 교육과정 또는 자료의 부족이 가장 많았으며, 가족 및 가정의 연계 부족, 지원체제의 미비, 관련 기관과의 연계 부족이 그 뒤를 따랐다. 반면, 전환교육이 발달장애학생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문항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그렇다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특수교사들은 전환교육의 도입과 실행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전환교육이 발달장애학생의 삶에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인식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 실정에서 전환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환교육과 관련한 요구가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환교육 관련 연수 확대와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구성, 관련 자원들과의 연계 등이 시급하다. 즉, 중등 발달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전환교육 내용과 지도방법이 요구되며, 발달장애학생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환교육이 발달장애학생들의 학교 졸업 후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지원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제언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광역시 소재 특수학교의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을 담당하는 특수교사이므로 결과를 모든 지역과 대상에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과 연구대상을 확대하고,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하여 연구가 실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양적연구의 결과로 좀 더 심층적인 배경변인과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신뢰성을 갖춘 도구를 활용하거나, 실제 인터뷰나 사례 연구와 같은 질적연구와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발달장애학생의 전환교육에 영향을 주는 다른 장애영역의 전환교육을 연구하여 변인간의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전환교육과 관련한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발달장애학생의 전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여 적극적인 정책과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전환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와 관련 기관간의 협력을 확대하여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전환교육 운영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은혜 (2012). 지적장애특수학교 전환교육프로그램 운영실태 분석.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중태 (2012). 경남지역 특수학교 전환교육 실태 및 수요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 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국립특수교육원 (2008). **특수교육기관 진로·직업교육 실태 및 요구조사**.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 국립특수교육원 (2009).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 국립특수교육원 (2014). **2014 특수교육 실태 조사**.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 교육부 (200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17). **2017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17). **2017 특수교육통계**. 세종: 교육부.
- 김민정 (2011). 고등학교 발달장애학생 학부모의 전환교육에 대한 인식 유형분석.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옥순 (2013). 중학교 특수학급교사의 전환교육에 대한 인식,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요섭 (2014). 일반 고등학교 재학 장애학생 부모의 전환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 조사. **학습장애연구**, 11(3), 23-44.
- 김영주 (2009). 지적장애 학생의 전환교육에 대한 부모와 교사 인식.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영 (2006). 특수학교 직업지도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 연구**, 2, 51-68.
- 김진호 (2001). 전환교육의 이론과 적용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35(4), 73-98.
- 김진호 (2007).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학령기전환교육모형 개발과 교육프로그램 및 방법 모색.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8(4), 1-27.
- 김희영 (2007). 중학교 특수학급 전환교육 인식과 실행실태.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영미 (2005). 정신지체 특수학교 직업교육교사의 전환교육 인식수준.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용규 (2007). 특수교사들의 전환교육에 대한 인식 비교.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금숙 (2000). 정신지체 특수학교 전공과 및 전환교육의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화 (2002). 전환 교육 개념 변화와 모형 비교.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40(0), 177-195.
- 박승희 외 (2011). **장애학생을 위한 전환교육과 전환서비스**. 서울: 시그마프레스.
- 박은영, 신인수 (2011). 발달장애 학생의 적응행동에 대한 전환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장애와 고용**, 21(2), 59-78.
- 박정식 (2005). 특수학교 전환교육 실행수준과 촉진방안.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정식, 조인수 (2006). 특수학교 전환교육 실행수준 분석. **특수교육학연구**, 41(1), 133-156.
- 박철 (2016). 중등발달장애학생의 전환교육프로그램 운영 실태 및 담당자 인식-부산지역 교육기관과 복지기관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희찬 (2006). 장애학생의 직업전환을 위한 지역사회 기관간의 프로그램 연계. **특수아동 교육연구**, 8(3), 103-127.
- 박희찬, 이효자, 장병연 (1998). **중증장애학생 전환교육의 실제(I)**.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 발달장애인법 (201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 보건복지부.
- 배명자 (2011). 중등 특수교육기관의 전환교육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전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근영 (2011). 중학교 특수학급의 지역사회중심 전환교육프로그램 운영 실태 및 인식.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석진 (2005). 전환교육에 대한 정서장애 학교 학부모의 인식 조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경례 (2011). 지적장애 자녀의 전환에 대한 부모의 경험과 기대.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은경 (2004). 발달장애 청소년의 전환교육에 관한 인식 연구. **직업재활연구**, 14(1), 133-164.
- 안지훈, 이승희 (2007).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운영실태 비교: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8(3), 203-229.
- 양재원 (2012). 중등학교 특수학급 교사의 전환교육계획 실행 수준.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은영 (2009). 천안, 아산지역 특수학급의 진로 및 직업(전환)교육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비교 연구.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애란 (2005). 전환교육관점에서 본 특수교육의 직업교육 및 방향. **한국직업재활학회**, 15(2), 177-192.
- 윤태성 (2008). 충남 중등 특수학급 전환교육 실태 및 개선방향.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태성, 유애란 (2008). 충남 중등특수학급 전환교육 실태 및 개선방향.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9(4), 17-41.
- 이미숙 (2014). 초등학교 전환교육의 실태-부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하 (2012). 발달장애인의 중등교육 이후 전환프로그램 모형 개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숙화 (2011). 시각중복장애학생 전환교육에 대한 운영 실태와 교사 인식.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미 (2012). 발달장애학생 대학교육 입학 및 지원에 대한 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의 인식 연구.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5(3), 71-92.
- 이은정 (2011). 정서·행동장애아동과 자폐성장애아동의 전환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분석.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정, 이원령 (2012). 일반학교 장애아동 부모의 전환교육에 대한 인식(정서·행동장애아동과 자폐성장애아동 부모를 중심으로). **특수교육**, 11(3), 27-47.
- 이은철 (2005). 청각장애 특수학교의 전환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 학생의 인식 조사.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익동 (2014). 발달장애인의 고용 관련 경험탐색 : 고등학교 및 고용초기 경험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은, 김정효 (2007). 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의 전환교육에 대한 인식과 경험. **직업재활연구**, 11(1), 147-174.
- 이태훈 (2007). 시각장애학교 교사와 학생, 전문가의 전환교육에 대한 인식수준과 촉진방안.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화영 (2008). 정신지체 특수학교 전공과 운영에 대한 교사의 인식 변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보성, 정희섭 (2013). 장애학생의 중등교육이후 '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지적장애연구**, 15(2), 25-47.
- 정동영 (2000). 장애학생의 전환서비스 강화를 위한 기관 간 협력방안.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민호 (2002). 전환교육에 관한 중등특수교사의 인식 연구.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윤우, 정동영 (2009). 중등학교 특수학급 학생의 전환 요인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0(4), 287-314.
- 정혜영 (2005). 발달장애청소년 전환교육프로그램의 비교분석(교육기관과 복지기관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분래 (2006). 정신지체 특수학교 전환교육 교사의 직무수행능력 기준 개발.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인수 (2000). **장애인의 전환교육**. 대구: 대구대학교 출판부.
- 조인수 (2002).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환교육과 서비스**. 대구: 대구대학교 출판부.
- 조인수 (2005). **정신지체아교육**. 대구: 대구대학교 출판부.
- 조인수 (2010). **전환교육**. 대구: 대구대학교 출판부.
- 조인수 (2013). 특수학교 고등학교과정 졸업 지적장애 근로자의 직업 성공요인 분석. **특수교육 교과교육연구**, 6(1), 115-173.

- 최문화 (2014). 전환교육서비스 실행 철학적 배경과 서비스 조정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방략.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세민 (2006). 고등학교 특수학급 직업진로지도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19(2), 69-85.
- 최평임 (2009). 발달장애 특수교육기관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 : 발달장애 특수학교 교사의 인식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현주 (2011). 초등학교 전환과정에서 장애 아동 부모의 인식·참여·요구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은애 (2016). 발달장애학생의 중등이후교육에 대한 부모의 지원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경임, 송미승, 김민정 (2013). 발달장애 고등학생 학부모의 전환교육에 대한 인식 유형 분석. **특수교육저널**, 14(1), 77-103.
- 황미애 (2013). 특수교육기관의 전환교육프로그램 실행 수준과 연계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주희, 이숙향 (2016). 국내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 청소년 대상 전환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요소 및 성과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이론과 실천**, 18(1), 145-169.
- Blackorby, J., & Wagner, M. (1996). Longitudinal postschool outcomes of youth with disabilities: Findings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transition study. *Exceptional Children*, 62, 399-413.
- Brown, L., Halpern, A., & Hasazi, S., & Wehaman, P. (1987). From school to adult living: A forum on issues and trends. *Exceptional children*, 53, 546-554.
- Clark, G. M. & Kolstoe, O. P. (1990). *Career development and transition education for with disabilities*. Needham Heigh, MA: Allyn and Bacon.
- Daniel, E. S., & Ernest, R., & Donemico, C. (2011). *Growing up: Transition to adult life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조인수, 이승훈(역). **전환교육 실행 방략**. 서울: 박학사.(원서출판 2007).
- Flexer, R. W., Daviso III, A. W., Baer, R. M., McMahan-Queen, R., & Meindl, R. S. (2011). An epidemiological model of transition and post school outcomes. *Career Development and Transition for Exceptional Individuals*, 34(2), 83-94.
- Halpern, A. S. (1985). Transition; A look at the foundations. *Exceptional Children*, 51(6), 479-486.
- Kohler, P. D. (1993). Best practices in transition: Substantiated or implied? *Career Development for Exceptional Individuals*, 16(3), 107-122.
- Newman, L., Wagner, M., Cameto, R., & Knokey, A. M. (2009). The post-high school outcomes of youth with disabilities up to 4 years after high-school. *A report of findings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Transition Study-2(NLTS2)*. Menlo Park, CA: SRI International.
- Ryan, O. K., & Mary, E. M. (2010). Tips for transition.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 Nov/Dec, 60-68.

- Schmidt, B. j., finch, C. R., & Moore, M. (1997). *Facilitating School-To-Work Transition: Teacher involvement and contributions*(MDS-938). National Center for Research in Vocational Educ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 Wehman, P., Moon, M. S., Everson, J. M., Wood, W & Barcus, J. M. (1988).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New challenges for youth with severe disabilities*. Baltimore: Paul H. Brooks Publishing.
- Will, M. (1984). *OSERS programming for the transition of youth with disabilities: Bridges from school to working life*. Washington, DC: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on Services.

A Study on the Management Status of Transition Education and the
Recognition on the Implementation Plans of Special School Teachers
for Students with Secondary Developmental Disability in
Special Schools: Focused on Busan Metropolitan City

Hwang, Soon-Young
Pusan National University
Yang, Hae-Lim
Busan Hyeseong School
Lee, Hoo-Hee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 of transition education and the perception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in the special school secondary developmental disabilities. For this purpose,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150 special school teachers who are in the middle school second grade and third of high school in the five special schools in Busan. The collected data used technical statistics and Chi-square to identify the differences between each factor and variable using SPSS Statistics(Version 23).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he transition education management status of the students with secondary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special schools, most of teachers did not establish individualized transition plans. Most of the goals of the transition education were independent living and daily living functions. In addition, there were many responses that they did not link with related organizations.

Second, the perception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about the transition education of secondary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independent living functions were most frequently responded to the transition education areas needed for students with secondary developmental disabilities. On the other hand, the majority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 lack of information from teachers or parents was the reason why parents counseling or connection with families was not successful. It was said that the schools and the related organizations need to cooperate for the transition education. There were many opinions that it would be better to start with elementary school if the school implements systematic transition education. However, most of the teachers realized that the implementation of transition education was still largely challenging and difficult in Korean society, and the main reason was lacked proper curriculum or materials and support system.

Key Words :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transition education, special school teachers, management status, recognition

논문 접수: 2018. 11. 12 심사 시작: 2018. 11. 12 게재 확정: 2018. 12. 26